



3·1절 전국마라톤

가족·동료 함께 '화합의 질주'

5km는 가족·동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걷기... 화합의 코스답게 축구·야구·특공무술이 함께 봄을 달렸다.

파란 유니폼 차림으로 5km를 쾌속 질주한 남부대 축구팀은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신생팀... 주장 김성민은 "축구가 많이 뛰는 운동이라서 마라톤이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희열이 있지만 마라톤은 자신과 싸우며 달려야 해서 어렵다"면서 "각자 능력에 맞게 부담없이 달렸다. 운동외에 다른 활동을 할 틈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축구·특공무술팀 등 유니폼 차림 눈길 새 각오 다지며 기록보다 어울림 만끽



남부대 축구팀·화순특공무술팀·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이 5km완주를 한 뒤 울 한해 선전을 디딤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이동국이 첫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쿠웨이트 킬~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조별 최종순위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팀, 승, 무, 패, 득실, 승점. Includes A, B, C, D, E groups.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한국 톱시드 받을까

쿠웨이트 2:0 격파

최강희(號)가 쿠웨이트의 거센 반격을 잠재우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이동국(전북)과 이근호(울산)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B조 1위를 확정된 한국은 레바논과 함께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최종예선 경기는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3차 예선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10개 팀이 출전해 올 6월부터 1년 동안 열린다.

요르단·이라크(A조), 한국·레바논(B조), 우즈베키스탄·일본(C조), 호주·오만(D조), 이란·카타르(E조) 등 총 10개국이 3차 예선 통과를 확정했다.

최종예선에서 다섯 팀씩, 두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탐당 8경기씩 치른다. 각 조 상위 두 팀, 총 네 팀은 본선에 직행한다.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은 4.5장이기 때

문에 각 조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에 도전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 승자는 내년 9월 남미 예선 5위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다시 치르는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3월9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다. 그동안 최종예선 조 추첨은 직전 월드컵 성적에 도대로 10개 팀의 순위를 매긴 뒤 시드를 배정해 이뤄졌다.

2월 현재 한국의 FIFA 랭킹은 34위(714점)로 호주(22위·832점), 일본(30위·762점)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톱시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차 예선 최종전에서 한국이 쿠웨이트를 2-0으로 이겼지만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에 0-1로 패했다. 이 때문에 3월 랭킹에서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톱시드를 받으면 최종예선 1차전을 홈에서 시작하지만 2번 시드로 밀리려 원정 경기로 최종예선의 첫 걸음을 뒀을 수 있다.

광주FC 8강 향한 첫 날갯짓

K리그 내일 상주시민공원에서 상무와 시즌 첫 경기

8강에 도전하는 광주 FC의 험난 날갯짓이 시작됐다. 광주 FC가 4일 오후 3시 상주시민공원에서 상무 상무를 상대로 2012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 데뷔와 함께 시·도민구단 창단 최다승(9승·11위)을 거뒀던 광주는 올 시즌 8강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개막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막강해진 화력이 그라운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올림픽 대표팀 출신 공격수이

자 K리그 최강신 북이(201cm)를 영입하면서 박기동과 이승기, 김동섭, 중앙파울로 등으로 이어지는 막강 공격리라인이 구성됐다.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골잡이 슈바(186cm)도 신인 공격수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와 상무의 개막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꼽힌다.

김재성, 김형일, 김자우, 최호진까지 무려 4명(골키퍼 제외)이 최강희호에 이름을 올

렸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을 비롯해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최종전 쿠웨이트전 연습으로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했다.

광주는 조지력으로 상무의 방패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국군체육부대라는 특성상 시즌을 앞두고 팀원의 절반 정도가 바뀌었고 박학성 감독도 부임한 지 이제 3달 밖에 되지 않았다.

광주 최하위 감독은 "상무 상무는 국내 최고의 실력과 미드필드진과 수비진을 갖춘 팀"이라며 "지난 시즌 상무 상무의 골문을 한 번도 뚫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강화된 공격력을 앞세워 신나게 두드려 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산행안내

8시광주역, 15분 두암동출발, 30분 고서... 3월3일(토) 광주주요산악회... 3월4일(일) 광주주요산악회...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도 한라산은 분할산악, 울레길 워킹... 79,000원 부터! 매일출발!

광주한울산악회 3월11일(일) 광주 계룡산 7시30분... 광주한울산악회 3월17일(일) 상현산 7시30분...

사무실임대 3층 120평 분할가능... 합병공고 2012년 2월 28일 주식회사 피에스지(주)...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